

##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 선언

### 23일 9차 중앙교섭 ... “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



금속노조가 2026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3일 오후 충남 케이엠피지회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 측이 새로운 안을 제출하지 않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초기 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교섭 초기부터 말씀드렸으나 9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측은 해답을 못 내놓고 있다"며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용자 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결렬 선언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추가 제시안은 없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관련 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각 지역별 항의가 크고 정년연장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인공지능(AI) 역시 노조가 생각한 만큼 제시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추가 제시안을 도출할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이상호 노조 충남지부장 "9차까지 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년연장과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제시안도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분노스럽다"며 "사용자 측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을 결정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